

투데이 칼럼

감성소방, 테마가 필요하다

고즈넉한 겨울 호수가 언 땅을 밟을 때면 뚝뚝 소리가 호수에 잔물결을 만든다. 살얼음이 낀 호수에도 차츰 겨울바람이 스쳐 지나갈 것이며 또다른 생명이 움트는 자리를 만들 것이다.

돌아켜보면 시간은 유수히 흘러가는 듯하지만 그 시간의 언저리를 붙잡고 있는 필자의 움켜쥔 손은 아직까지 펴지 못한 채, 새로움을 시작하려고 한다.

다짐하는 순간, 기해년 새해가 이마에 붉은 빛을 내비치고 있었다. 지난해까지 생각해오던 소방공무원으로 지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손안에 남아있는 온기가 가슴을 뜨겁게 한다.

국민들의 슈퍼영웅, 신뢰받는 직업 1순위, 도움이 손길 필요한 곳엔 항상 소방이 있었다.

재난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생명을 바치는 숭고한 정신까지 소방관들의 직업적 열정과 헌신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갯빛을 희망의 빛으로 바꾸기 위해 흘린 땀방울과 거친 숨소리가 가슴에 메이리친다.

소리없던 메아리는 다시 소방으로 돌아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인력충원, 조직개편, 국민들의 열망, 그리고 미래 소방관을 꿈꾸는 청소년들의 외침까지 소방의 새로운 생명의 세포가 살아 숨



김학수

고청소방서 소방행정팀장

쉬고 있다.

이런 소방의 새로운 전환점에서 신선한 생각이 새로운 가치로 뻗어 간다. 그동안 소방은 화재진압, 구조, 구급, 생활안전까지 국민들의 곁에서 구원의 손을 내밀었다.

이런 소방의 정신은 불변하지만 이보다 더 나아가 이제 소방에 감성세포를 이식하고 테마가 필요하다.

1인 미디어 시대, 해시태그가 정책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

모든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최소한 '좋아요'로 동참하고 있다.

이런 역사적 흐름을 간과할 수만은 없다. 예를 들면 반려견과 함께 하는 거품 샤워, 혼자 먹는 식사 한 끼에도 건강이 담기를 바라는 감성들이 담겨 마음을 흔든다.

물론 소방의 고유업무는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활동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고마움과 믿음의 테마로 몸쳐져 있지만 감성까지 더해진다면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발맞춰 사회적 취약계층에 재난예방을 위한 소방정책과 복지 나눔으로 따뜻함을 전하고 감동을 주고 있다.

재난현장의 열정적 소방관의 사진 한 장이 주는 메시지, 국민과 함께하는 체험행사들도 소방의 문턱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두 팔을 벌려 안아주고 다독여주는 마음도 감성세포가 이식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감동의 여운은 사람들 마음속에 잔물결을 만들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지금보다 더 발전하는 소방 조직의 필수조건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소방의

문을 개방하고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 찾아오고 싶은 소방서로 탈바꿈하여 안전의식을 함양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정신적으로 지친 현대인도 포함된다.

그래서 이들은 사회 전면에 나서기를 꺼리면서도 온라인 상에서는 자신을 드러내고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진을 올리고 댓글로 위안을 삼고 뿌듯해한다.

소방이 열린 공간을 제공하여 함께 나간다는 감성으로 보듬어 준다면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이며 서로간에 굳건한 신뢰가 쌓일 것이다.

지친 현대인에게 안전불감증까지 더해진다면 그만큼 어깨가 무거워지고 사회가 불안해짐을 지우기 위해서 감성소방 이미지가 불안감을 떨쳐버리는 약속이 될 것이다.

불안감을 떨치라고 강요하기보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감동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야 한다.

그것이 소방이 앞으로 실천해야 할 테마이다.

겨울 호수에서 움켜쥔 손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간의 온기가 소방공무원으로 사명감이 더해져 심장박동을 더 빠르게 뛰게 한다.

사설

이러다간 180만 명 붕괴도 시간 문제

본보가 전북도에 준 말이 있다. 올해 생각해야 할 것이 많은 중에 우선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게 인구 감소 문제라고 했던 것이 그것이다. 그게 불과 며칠 전의 일인데 아니냐 다를까 도내 언론사들이 인구 감소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기사들을 내뿜었다. 지난해말 기준 인구가 183만 6832 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7천775명이 감소했으니 왜 아니 그러겠는가. 재작년에도 감소 인구가 1만 명을 훌쩍 넘어 전국에서 전북의 인구 감소 폭이 제일 컸던 걸 생각하면 지금의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니다.

이러다가는 180만 명 선 붕괴도 시간 문제라는 판단이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2018년까지 연도별 인구 현황표의 추세를 보아도 난감하고 시군별 인구 분포 현황을 보아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전북도는 인구의 감소와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저번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해마다 전년도와 비교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의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뚜렷하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보가 인구 감소 현상을 심각하

게 보는 근거가 있다. 혁신도시의 발전같은 인구 증가 요인이 있음에도 그 약발이 약하기 때문이다. 인구가 줄고 있음이 목도된 지 오래인데 혁신도시 쪽에만 매달린 채로 대책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제 전북은 고통자들의 고향이 돼버렸다. 답답하고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청년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북도의 책임이 크다. 전북도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보다 분발해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거창한 미래 비전 제시가 아니다.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훨씬 더 절실하다. 전북도는 먼 미래의 이상보다 오늘의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전북도는 올해 인구 감소 해결책을 내놓아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180만 명 선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전북도가 인구 감소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청년 고용의 현실을 꼭바로 보아야 한다.

정말이지 고질적인 악순환의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청년 인구의 유출은 앞으로도 계속될 터이다.

전북도는 활발한 기업 유치와 관철은 일자리 창출로 돌파구를 열어야겠다.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 경제도 살려야 한다

젊은이들이 간절히 바라는 주요 관심사가 있다. 취직이 바로 그것이다. 전북도가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를 살려내고 일자리를 보다 더 많이 만들어주어야겠다.

희망과는 반비례로 어두운 전망만이 암울한 까닭이다. 그래서 도내 젊은이들은 전북 지역을 떠나려는 정서가 여전하다. 그래서 매년 말하거나 전북도의 책임이 크다.

전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를 보면 어디라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침체 양상이다. 그렇다해도 우리 전북의 경우가 더욱 심하다.

그래프를 보면 지난 십수 년 동안 전국 평균 아래 쪽에서 들쭉날쭉한 모습이다.

전북도는 도내 젊은이의 감소 현상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만 할 게 아니다. 지금의 난감한 사태와 관련해 그 주된 책임이 중앙 정부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지방정부인 전북도 또한 책임이 아주 없지는 않다.

전북도는 관철은 일자리 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그 일자리 마련의 책임

을 공기업과 민간 기업도 나누어 짐겨야 한다. 다들 진정성을 가지고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는 당부이다.

일자리 만들기가 숫자 채우기 같은 것으로 변질돼선 곤란하다.

그것은 올바른 해답이 아니다. 젊은이들은 보수도 관철고 고용도 안정된 직장을 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청년 일자리 만들기 작업을 견실하게 해야 한다.

그렇다. 우리 전북 지역은 일자리 창출이 여전히 저조하다. 고용 분위기가 또한 살벌하다. 그리고 전북도는 군산시와 머리를 맞대고 군산 살리기 작업을 고민해야겠다.

군산 경제가 불락한 지 오래 됐건만 어떻게 회복시켜보려는 움직임이 없으니 답답하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말하려면 양질의 일자리부터 만들어 주어야 한다.

시간제 일자리나 기간제 일자리는 고용이 불안한 젊은이들이 철새처럼 다른 일자리를 찾는 등 방황하기 마련이다.

독자제언

겨울철 화재, 각별히 신경 써야

지난해 화재발생 통계를 보면 겨울철에 화재의 33.4%가 집중되어 있다. 겨울철은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다른 계절에 비하여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화재는 일단 발생하면 재산과 인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민약 전기장판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코드를 뽑아 전기를 차단하고,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많은 전열 기구를 한 개의 콘센트에 꽂아발식으로 꽂는 것도 위험하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 코드를 뽑아 놓고, 누전 차단기나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

이다. 또한, 담배꽂초는 계절을 가리지 않는 주요 화재 발생 요인으로, 특히 건조한 겨울철에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거대한 산불의 시작은 담배꽂초 같은 미약한 불씨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화재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압을 하면 된다.

불이 났다고 크게 외쳐 주변사람들에게 알리고,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고 방출호스 끝 부분을 잡은 후 빗자루로 땅을 쓸 듯이 분출하면 된다.

겨울철 난방기구 안전수칙을 잘 확인하고, 화재 없이 건강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

최해진 고청경찰서 경무계 순경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골든글로브 시상식 개막



6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베벌리힐스의 베벌리힐튼에서 제76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열려 산드라 오오프록(좌)과 앤디 샘버그가 진행하고 있다.

Large graphic with a sailboat on waves and a sun/moon, containing text about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A forum for humans who bring courage and hope) and '전주매일' (Jeonju Maeil) logo.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